완도군, 화성시와 교류 사업 본격 시동

화성시 방문…특산품 판촉 등 다양한 교류사업 추진 논의

신우철 완도군수 "다양한 분야 교류 통해 상생발전 하기를"

완도군은 지난 20일 자매결연 도시인 화성시를 방문해 우의를 다지고 본격적인 교류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완도군과 화성시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7월 말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한 화성시 수산 관계자들이 완도를 방문한 이후 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화성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완도산 특산물 판촉과 양식 기술 전수 등 현재 진행 중인 경제·산업분야 교류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아울러 완도군에서 자체 발굴한 5개 분야, 11개 교류 사업을 제안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지역 특산물 판촉 교류는 화성시에서 완도군 방문 시 광어 500kg과 전복 150kg를 현장에서 구매하여 교류의 물꼬를 튼 이후 지속적인 공급·판매를 위해 궁평항 내에 저장 수조와 운송 장비를 구축했다.

완도군에서는 궁평항 내에 특산품 판매장을 상시 운영할 계획으로 유통구조 간소화를 통한 실질적인 판촉 교류가 이뤄지고 있으며, 흰다리새우 육상 양식기술 전수 등 민간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리 군의 특산물 판촉과 양식기술 교류 등 교류 사업이 하나 둘 추진되고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방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문화·관광·교육·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우수한 해양자원과 수산물을 보유한 완도군과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감을 감출 수 없다."며 "양 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두 도시의 강점을 살린 교류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에는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과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방문하여 시장 규모를 살펴보고 지역 특산물 판촉 상황을 점검하였다.

화성시는 높은 인구 증가율(인구 83만 명)과 넓은 소비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시 경쟁력과 재정력이 높은 도시이다.

앞으로 군은 자매결연을 통한 상생발전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화성시와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해남군, 대중국 교류 새 장 연다

싱하이밍 중국대사 해남방문해 명현관 군수와 만남

명현관 해남군수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가 올 들어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싱 대사는 22일 해남군을 방문, 명현관 해남군수와 환담을 갖고, 대중국 교류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싱 대사의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이뤄진 명군수의 중국대사관을 방문에 대한 답방의 의미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새로운 교류협력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됐다.

명현관 군수는"이번 싱대사님의 방문을 계기로, 해남 농산물의 중국진출 물꼬를 트는 것은 물론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새로운 장을 열고, 공동번영의 길을 찾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싱대사는"수천년 동안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공유해온 중한 양국은 코로나 극복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오늘 땅끝이라는 뜻깊은 곳에서 명군수님과 만남으로써 코로나를 함께 이겨낸 이후에는 한층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싱 대사는 유기농 해남쌀의 중국 수출 기념식 등에 참석하는 등 1박 2일간의 일정을 진행한다. 22일 열린 쌀 수출 기념식에는 싱 대사를 비롯해 장청강(張承剛) 주광주총영사 등 중국대사관 관계자들과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와 중국 수출대행사인 CCIC 위카이궈 대표 등이 참석해 해남쌀 수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해남군은 올해 가공수출 쌀전문 재배단지에서 재배한 기능성 쌀인'친환경 가바쌀'을 중국에 첫 수출한다. 땅끝황토친환경영농법인의 친환경 가바쌀은 국내 최초로 중국 국가 유기인증(CQC)을 받은 최고급쌀로써 관해미(觀海米) 브랜드명으로 올해 총 30톤을 수출할 예정이다. 기념식에 참석한 싱대사는 중국의 사기(史記)에 나온 `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을 인용한 뒤"천혜의 자연과 선진 기술로 만들어진 맛있는 해남쌀이 중국 소비자에게 큰 사랑을 받으리라 확신한다"고 축하했다.

특히 싱대사는 해남군 산이면에 위치한 황조별묘를 참배하고, 해남과 중국의 오랜 인연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해남군 산이면 황조마을에는 정유재란(1597년 8월~1598년 12월) 당시 수군 도독으로 출병해 이순신 장군과 함께 왜군을 물리친 진린 장군의 후손들이 이주·정착해 광동진씨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황조별묘는 진린장군의 사당으로, 중국과의 400년 우정을 상징하는 장소로 부각되고 있다.

싱대사는 1박 2일간 해남 고산윤선도유적지와 대흥사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한편 기업도시와 오시아노 등 해남의 주요 투자유치 대상지에 대한 시찰도 실시한다.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에너지 자급형 미래도시 구축이라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최적지로 꼽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비롯해 제주도와 최단거리에 위치한 오시아노 관광단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설명회를 통해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잠재된 해남에 대한 관심을 이끌낸다는 목표이다.

싱대사는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중한 양국이 기회를 잡고, 코로나 이후 함께 새로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희망하며, 중국 관광 활성화와 투자 유치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관심을 표명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중국과 한국 그리고 땅끝 해남이 만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이번 자리가 향후 대중국 경제·문화 교류를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겠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강진 대표 상품 한자리에 모였다"… '강진품애' 마켓 행사

내달 22일까지 매주 토·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강진군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군은 10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강진중앙로 상가에서 '강진품애' 마켓행사를 개최한다. 마켓에서는 수제공예품과 지역특산물, 특화상품의 판촉행사가 진행되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극장통 골목 일원에서 개최된다.

'강진품애' 마켓에서는 귀걸이와 팔찌 등 액세서리류부터 생활자기 및 부채, 도자기류 등 다양한 수제공예품이 판매된다. 또한 표고버섯과 수제청, 유기농 쌀과 잡곡류 등 지역 특산물과 함께 강진책빵, 쌀귀리, 동백오일, 황칠진액 등 강진군의 특화 상품 또한 구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근대의상 무료체험장, 근대거리 포토존, 관광객 상품권 증정행사, SNS 업로드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근대의상 무료체험장에서는 근대의상과 교복 등을 무료로 입어볼 수 있다. 또한 강진의 옛 점포와 추억의 물건들로 조성된 근대거리 포토존에서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물 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제11회 물 산업비전포럼

장흥군은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1회 물 산업비전포럼에서'물 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금년에 제11회째를 맞은 물 관리 심포지엄 및 전시회에는 물 복지 실현과 물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내용으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장흥군은 그동안 유수율 제고를 위한 물 손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3년부터 수도시설(관망)을 15개의 대 블록으로 분할, 다시 76개의 소블록으로 분할하여 유량 등을 감시통제하고, 총 23km의 노후관 정비, 연간 140건의 자체누수탐사 및 복구, 과학적 감시 경보의 시스템화로 2019년에 유수율 85.7%를 달성하여 현재까지 유지중에 있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밝은 거리 조성사업 추진 '박차'

진도군은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읍·면 소재지 경관 조명과 주요 도로 가로등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진도천 산책로를 비롯해 남촌교, 조금리 버스승강장, 수자원공사 일대, 철마광장, 군내면 금골리, 지산면 인지리, 의신면 군포리 등에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했다.

앞으로 주민 만족도와 의견 청취 후 면소재지 야간조명을 확대 설치해 야간 경관조명이 어울어진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관조명 설치는 민선 7기 역점사업인 밝은 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밝아진 도로 환경을 통해 군민들의 안전이 확보됨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볼거리 제공을 통한 침체된 상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